

양파 육묘, 벼 육묘장 활용시 5분의 1로 줄어

벼 등 육묘 시설 활용하면, 온실 신축 때보다 비용 크게 줄어

현재 63.3%에 그치고 있는 밭농업 기계화율을 2026년까지 77.5%로 높이기 위해서는 작물의 파종, 아주심기(정식), 수확 작업의 기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양파 아주심기(정식) 작업의 기계화는 모종 기르기가 핵심이라며, 가을에 사용하지 않은 벼 육묘장을 활용해 실증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기계화에 알맞은 양파 플러그묘* 생산기술을 확립하기 위해 내재해형 육묘 온실 모형(모형)을 개발, 보급해 왔다. 더불어 시설 신축에 부담을 느끼는 농가를 위해 벼 육묘장 등 이미 구축된 다른 작물의 육묘 시설을 활용해 육묘 온실 구축비를 아끼는 내용을 현장 실증해 왔다.

연구진이 전남 신안군의 벼 육묘장



한 곳을 선정해 양파 육묘에 알맞도록 보완한 결과, 현재까지 내부 시설에 투입한 비용은 물 주는 장치와 환기 장치 등 8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양파 육묘 온실을 새로 짓는 비용의 20~30% 수준이다. 벼 육묘장은 1년 중 3개월(4~6월)

동안은 벼를 육묘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가동하지 않는다. 전국 양파 주산지에 있는 벼 육묘장을 활용하면 육묘장 40배 면적에 심을 모종을 기를 수 있다.

권재한 청장은 10월 7일 양파 파종 현황과 양파 육묘 현장 실증 연구 점검차 전남 신안군 육묘장을 찾아 "양파 아주심기는 양파 재배 과정 중에서도 기계화율이 낮은 작업이다."라며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균일하고 충실한 양파 모종 생산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청장은 "필수적인 육묘 온실 구축비를 줄이려면 기존 작물의 육묘 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관련 연구자들에게는 "실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육묘 지침서(매뉴얼)를 현장에 빠르게 확산시키는 데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욱기 기자



2024년 생산자조직화 부문 연도대상을 수상한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의 한 육도 배가 대만을 기점으로 수출에 전력을 쏟고 있다.

전주농협, 대만 배 수출 선적식

한육도 배 16톤 실어 보내... 올들어 5번째 선적

2024년 생산자조직화 부문 연도대상을 수상한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의 한육도 배가 대만을 기점으로 수출에 전력을 쏟고 있다. 농협은 지난 4일 산지유통센터에서 '대만 배 수출 선적식'을 갖고 16톤을 실어 보냈다고 밝혔다. 올 들어 5번째 선적으로 계획물량은 130톤이다.

전주농협의 대만 배 수출 지지화 전략은 국내 과일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품질이 우수한 전주 배의 해외시장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격 경쟁이 치열한 국내산 소비시장에

서 생산자에게 보다 높은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해외수출에 일찍이 눈을 돌린 전주농협의 판매유통전략의 결실이라는 자평이다. 임인규 조합장은 "대만 배수출을 통한 견고한 해외 전진기지를 기반으로 향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수출 확대추진과 함께 고품질 생산과 가공으로 국내시장에서 차별화를 하겠다"면서 "수출 물량을 꾸준히 상승 유도하고, 시장 다변화를 통해 전주 배의 우수성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농어촌공, 대한민국 농기자재 세계무대에서 통했다

필리핀 농업박람회, 한국 농기자재 수출 활로 개척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24년 필리핀 농업박람회'에 참가하여, 국내 농기자재의 뛰어난 품질과 경쟁력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30회를 맞이한 이번 농업박람회는 세계 30여 개국에서 약 500개 기업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로, 필리핀 정부의 농업 생산성 증대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이 발표된 직후에 개최된 만큼 농업 기계화 및 현대화에 대한 필리핀

내 관심이 많이 증가하면서 한국 농기자재 기업들이 더욱 주목받는 무대가 되었다.

공사는 288㎡ 규모의 한국관을 운영하며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등 다양한 농기자재를 선보였다. 또한, 박람회에 참가한 국내 농기자재기업 25개사를 대상으로 필리핀 시장 분석과 진출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기업들의 성공적인 참가를 도왔다.

그 결과, 이번 박람회에서 다수의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162건, 1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기록하며 지난날 베트남 시장개척에 이어 필리핀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병호 사장은 "국내 기업들의 농기자재 품질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필리핀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필리핀 농업박람회에 이어 오는 11월 독일, 베트남, 튀르키예 등지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에도 참여, 국내 농기자재의 해외 진출에 힘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아동 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연원섭)는 7일에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 인식 확산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상호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한전 전북본부에서는 매년 직원들이 출연한 기부금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아동 학습지원 후원금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사랑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원섭 본부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아동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한전 전북본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참여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박중화 본부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이용배 금강경영처장을 추천하였다. /김욱기 기자

전북은행, 최고 연 12.0% 'JB 황금씨드 적금'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최고 연 12.0%의 금리를 제공하는 'JB 황금 씨드 적금'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JB 황금 씨드 적금'은 전북은행 캐릭터인 '제이비(Jay-B)'와 함께 탐험을 하는 콘셉트로 매월 제공되는 보물 상자를 확인하고 획득하는 이자 씨드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는 상품이다. 보물상자는 가입 월로부터 5개월간 월 최대 10개씩 총 50개를 제공하며, 가입 기간은 6개월, 납부 금액은 월 1만 원~20만 원 이하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기본금리 연 2.0%에 획독한 이자 씨드 종류(황금씨드 연 10.0%, 에메랄드 씨드 연 1.00%, 루비 씨드 연 0.10%, 스톤씨드 연 0.01%)에 따라 우대금리가 최고 연 10%까지 만기 시 누적 적용되며, 가입기간 동안 종류에 상관없이 이자 씨드를 총 50개 획득하면 연 0.3%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신상품 출시 기념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행운 가득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JB 황금 씨드 적금 가입 후 자동이체 설정 고객을 대상으로 '순금 씨앗 24K 3g', '배달의민족 1만 원권 쿠폰' 및 캐시

Jay-B와 함께 신나는 탐험! **황금씨드를 찾아라!** 매일 10개 보물상자를 확인하고 4가지 이자씨드에 따라 우대금리 받자!

최고 연 **12%** 기본이율 **2%**

백 등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높은 금리와 재미 요소를 결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JB 황금 씨드 적금'도 소소한 성취감과 행운의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덕유산 탐방안내소, 국립공원숍 운영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는 반달이 캐릭터 등 국립공원 굿즈 제품을 덕유산 탐방안내소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가을 단풍 시기에 맞춰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일부 굿즈에 대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대표 반달이 기념품은 그동안 팝업스토어를 통해 1시간 전부터 대기행렬이 이어지는 등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다. 현재는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탐방안내소를 방문하면 반달이 기념품과 더불어 가방걸이, 키링, 마그넷, 엽서 등 특색 있는 기념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능하다.

특히, 탐방안내소 국립공원숍은 지역 사회적기업이 협업, 운영하고 있어 탐방객이 국립공원 기념품을 구매하면 일부 수익금이 환원되어 중증환아, 경제성장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가치소비도 할 수 있다.

덕유산 국립공원숍은 탐방객들의 가치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행운 반달이 인형을 포함한 일부 기념품에 대해서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20% 할인된 가격으로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할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탐방안내소에서는 평소 궁금했던 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관광정보도 얻고, 자연전시실, 체험실 등 전시·체험공간이 있어 무료로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는 사회적기업 동반성장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송종구 작가의 덕유산국립공원 깃대종 미술 작품 전시회를 운영한다.

덕유산 국립공원숍은 어사길 입구 탐방안내소 내에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